

일제시기 천주교회 여학교의 학내 분류와 그 양상

– 대구 효성여학교 분류를 중심으로 –

김 가 람*

- I. 머리말
- II. 효성여학교의 설립과 학내 분류의 발발
- III. 효성여학교와 천주교회의 권위주의적 대응
- IV. 언론의 개입과 효성여학교 측의 폐쇄적 태도
- V. 맺음말

국문초록

1924년 한국 천주교회는 대구에 효성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그해 효성여학교는 학교 운영진에게 욕설을 한 30여 명의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학생과 학부모는 효성여학교를 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하였지만, 학교 운영진은 효성여학교를 교회의 일부로 생각하여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을 기사화한 언론은 분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와 천주교회의 권위주의적 대응을 지적하면서, 조선인 여학생들이 학교 측에 눈물 어린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교 관계자들이 이를 외면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조선인

*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 aphro623@naver.com

수녀는 조선인에서 배제되었지만, 천주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효성여학교 분규는 일제시기 한국인과 외국 종교와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잘 보여준다. 첫째 일제시기 학교와 교회를 동일시 한 한국 천주교회는 학생들을 천주교 신자로 파악하며 교회의 권위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효성여학교의 분규는 학생의 욕설과 이에 대한 강압적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었지만, 당시 언론은 사건 관련자를 조선인과 비조선인으로 이분화하여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게 동조하는 혹은 한다고 여겨지는 조선인도 외국인으로 타자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인 수녀들은 일제시기 조선인이므로 받는 차별 외에도 종교의 폐쇄적 구조 및 외국 세력의 동조자라는 이중, 삼중의 억압에 놓였다.

◆ 주제어

효성여학교, 한국 천주교, 외국 종교, 대구대목구, 여성 교육, 학내 분규, 여학생, 일제시기 언론, 수녀

I. 머리말

1784년 설립된 조선 천주교회는 일찍부터 여성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완숙으로, 조선에서 활동한 최초의 신부인 周文謨는 姜完淑을 회장으로 임명하여 여성에 대한 전교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주문모 신부 이후에도 조선 천주교회는 과부의 재가 허용과 강제 혼인 금지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였으므로, 여성에 대한 조선 천주교회의 호의적 태도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도부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지휘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여성도 천주교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분명히 한 것은 조선 천주교회의 긍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일제시기에 들어서며 보다 본격화되었다. 여전히 여성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가정이었으나, 조선에 비하여 교육 및 직업 선택의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식민지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운영되었으나, 일제의 조선교육령 시행은 공공 교육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고, 이는 한국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사회의 일반적 인식 및 각 가정의 한정된 자원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여전히 남성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며 여성 교육에 소홀한 상황에서 천주교회는 여성 교육에 더욱 집중하였다. 동시에 도시에 비하여 지방 여성들이 교육에서 더 많이 제외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지방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 타파 등의 기초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다수의 여성을 교육하고자 하였다.¹⁾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종교 기관으로

1) 신영숙, 「일제 시기 천주교회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 『교회사연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100쪽. 신영숙은 이러한 천주교의 여성 교육은 도시 위주로 여성 교육을 진행한 개신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지적하였다.

써 교육의 목표를 전교로 설정하면서, 기초 교육에 집중하였다. 무료로 운영하는 야학 등을 통하여 천주교 신자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한 것과 달리 교육자의 자격 강화 등 일제의 교육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 설립에는 소극적이었다.²⁾ 이어 천주교회의 여성관을 투영하여 ‘성모마리아’로 대표되는 순명과 희생을 강조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여성관이라 할 수 있는 良妻賢母觀과 결부되어 더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여성 교육에 매우 소극적이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사회 구성원보다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하던 사회였으므로, 여성을 사회 내 전문 인력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이 되도록 교육하였기 때문이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현명한 여성 배출이 당시 여성 교육의 목적이었다. 한국 천주교회 또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1976년 김영순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였다.³⁾ 김영순은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 활동을 한국 천주교회의 본격적인 여성 교육의 시초로 보았다. 이어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1세기 들어 신영숙과 윤선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영숙은 「일제시기 천주교회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⁴⁾에서 일제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윤선자는 계성여고의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 일제의 교육 정책에 순응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태도를 지적하였다.⁵⁾ 이 연구들은 기존 연구가

2) 윤선자, 「일제 말기 가톨릭 여성교육과 계성여고」, 『한국 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143~144쪽.

3) 김영순,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의 여성 교육 - 1795~1910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4) 신영숙, 「일제 시기 천주교회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 『교회사연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5) 윤선자, 「일제 말기 가톨릭 여성교육과 계성여고」, 『한국 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연구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 교육의 일환 또는 일제시기 교육 제도의 일환으로만 여성 교육을 살폈다는 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이 가진 특징을 1924년 개교한 대구의 효성여학교 분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4년 11월에 발생한 대구 효성여학교 분규는 외국 종교가 설립한 여학교에서 교육받던 조선인 여학생들이 수업에 간섭하는 수녀에 반발하고, 결국 퇴학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다. 외국 종교의 학교와 조선인 학생이라는 점에서, 이 분규와 민족주의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1920년대 발생한 다수의 학내 분규는 일제 정책에 반발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였다.⁶⁾

다만 효성여학교의 분규는 일본인이 아닌 서양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건은 조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을 교육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서 촉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인 학생들은 분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 등은 조선인과 서양인을 철저히 구분하며 타자화하였는데, 이 대상에는 조선인 수녀들도 포함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은 종교 기관의 학교 교육에 여학생들이 반발하였고, 학교 측은 종교의 권위를 빌어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내부 수습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인 수녀들은 조선인에서 배제되며 타자화된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사건의 양상을 먼저 확인고, 이 사건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외국인 교육자들과

독교역사연구소, 2006.

6) 장규식,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39 - 1920년대 학생 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14쪽.

조선인 학생, 그리고 언론 및 지역 사회와 같은 외부의 시각이 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였던 조선인 수녀가 외국인 운영진과 조선인 학생들로부터 모두 배척되는 과정도 확인하겠다. 이는 식민지 시기 민족적 차별 또는 배척과 가부장제의 억압을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던 수녀들의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자료들을 살펴볼 것인데, 당시 효성여학교의 교장이었던 드망즈 주교가 작성한 『드망즈 주교 일기』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언론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II. 효성여학교의 설립과 학내 분규의 발발

일제시기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에 관한 관심은 전교라는 목적 달성과 관련 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신교와 천도교 등과 비교했을 때 여성 교육을 선도하였다고 하기 어렵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 타파에 집중하였다. 지방에 설립한 본당⁷⁾ 등은 야학 등을 설립하며 거의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광범위한 여성들을 골고루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⁸⁾ 당시 교육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천주교회 차원에서 여성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 교육을 통하여 향후 여성이 꾸릴 가정의 구성원들을 천주교인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⁹⁾

한국 천주교는 이러한 야학 외에도 학제를 갖춘 정식 여학교 설립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7) 흔히 말하는 ‘성당’은 성전을 가리키는 장소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사목을 담당하는 공동체를 본당이라고 지칭한다.

8) 신영숙, 앞의 글, 100쪽.

9) 신영숙, 앞의 글, 103쪽.

<표 1> 일제시기 천주교회 여성 교육(1910~1925년)¹⁰⁾

년도	학교		학생	
	서울대목구	대구대목구	서울대목구	대구대목구
1910년	10		475	
1911년	11		709	
1912년	13		541	
1913년	13	6	583	189
1914년	13	5	641	265
1915년	12	4	621	220
1916년	14	3	624	213
1917년	13	2	637	146
1918년	11	4	679	210
1919년	12	6	728	281
1920년	493	11	5,903	259
1921년	13	5	1,254	364
1922년	16	5	1,615	315
1923년	15	22	1,760	548
1924년	19	20	2,092	669

<표 1>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천주교회가 한국에 설치한 정식 여학교와¹¹⁾ 이곳에서 교육받은 여학생 수에 관한 표이다. 1911년 조선

10) 이 표는 신영숙의 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915년부터 1916년의 대구대목구는 박상혁의 논문을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신영숙, 앞의 글, 109쪽.

박상혁, 「일제의 종교정책과 대구대목구의 대응에 대한 고찰 - 드망즈 주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1쪽.

11) 1944년 8월 개교한 계성여자상업전수학교가 일제시기 천주교회에서 개교한 유일한 여성 고등교육기관이다(신영숙, 앞의 글, 112쪽). 계성여자상업전수학교 이전에 있던 계성여학원(1927년 개교)은 중등교육을 이수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였는데, 대다수가 일본인 학생이었다(윤선자, 앞의 글, 145쪽).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 천주교회에서 설립한 여학교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은 없으므로, <표 1>의 학교는 모

전역을 관할하던 조선대목구는 대구대목구를 분할 독립하면서, 조선은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라는 두 개의 대목구를 중심으로 전교 활동을 하였다. 두 개의 대목구는 조선을 양분하여 관할하였는데, 서울에 설치된 서울대목구는 경기도·충청도 일부 및 북쪽 지역을 담당하였다. 경부선 개통 및 1,500여 명의 신자라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구에 설치된 대구대목구는 경상도·전라도·제주도·충청도 일부의 선교를 담당하였다.¹²⁾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도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도에 한국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여학교는 서울 및 그 근교의 10개교에 불과하였지만, 1924년에는 서울에 19개교, 대구에 20개교, 즉 총 39개교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1920년에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 모두 학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듬해인 1921년에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아 야학 등의 교육 시설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1910년에는 서울대교구의 여학생 수가 475명이었으나 1924년에는 2,09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구대목구도 669명의 여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1924년 한국 천주교회에서 설립한 정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던 여학생의 수는 총 2,761명이었다.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의 학교 및 여학생 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1913년과 비교해볼 때 11년간 한국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여학교의 수는 약 2배, 이곳에서 교육받은 여학생 수는 약 3.5배 이상 증가하였다. 1년 후의 통계이긴 하지만 1925년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사립 보통학교에서 교육받던 여학생 수가 5,639명이었던¹³⁾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성 교육에서 천주교의 활동이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두 보통학교로 볼 수 있다.

12) 박상혁, 앞의 글, 6, 31쪽.

13) 송규진,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318쪽.

14) 1925년 공립보통학교의 여학생 수는 52,039명이었다(송규진, 앞의 글, 316쪽). 이 수치와 1924년 천주교 소속 여학교에서 교육받은 여학생의 수가 2,761명을 비교할

이러한 증가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였다. 조선교육령의 반포는 여성 교육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였다. 분명 조선교육령의 목적은 총독부 관리 하에 운영하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을 일제에 포섭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총독부에서 허가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었으며,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교육령은 기초 교육 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공장 노동이나 도시 서비스 노동과 같은 공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문 정도는 깨우치게 하는 보통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¹⁵⁾ 근대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에 투입할 노동자가 필요하던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에 실시한 근대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근대 교육 기관과 학생 수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에서 설립한 여학교도 전교 목적의 종교 교육과 근대 사회의 적응을 위한 실용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실용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업 교육은 넓은 의미의 賢母良妻 양성을 내포하였다. 가정 내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약간의 실업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여성을 교육한다는 목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당시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던 부모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교육을 통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 좋은 혼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⁶⁾ 즉 여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와 부모, 그리고 한국 천주

때 여성 교육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활동이 작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5)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257~258쪽.

16) (남녀의) 교육의 차이 때문에 자연히 교육받은 여자를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지적 생활의 차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어 가정붕괴가 자주 일어나고 이혼문제가 제기되곤 했는데 그 근본 이유가 여성이 남자보다 지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73쪽). 노영택의 이러한 분석은 그 실례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교회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일제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여성 교육은 점차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천주교회 대구대목구는 曉星女學校를 설립하였다. 효성여학교의 모체는 1910년 3월 부설된 聖立學校 여자부였다. 성립학교는 1908년 대구 본당(현 계산동 본당)의 로베르(A. P. Robert, 金保祿) 신부가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6년제 학교였다. 1910년 대구 최초로 여자부를 설립하였으나 재정난과 사립학교 규칙 반포로 성립학교는 1914년 3월 폐교를 선언하였다가, 천주교 신자인 金燦洙 등의 노력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1915년 학교를 인수한 김찬수는 1916년 9월 교명을 海星學校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1923년 11월 남학교와 여학교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1924년 1월 14일 야간제에서 주간 4년제로 승격한 여학교는 효성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개교하였다.¹⁷⁾ 이듬해 5월에는 6년제 보통학교인 효성여자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독립 이후에는 ‘효성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 교명은 ‘효성초등학교’이다.¹⁸⁾

한편 교회 재정 등의 문제로 1915년 천주교 신자인 김찬수가 학교를

특히 도시 지역을 벗어난다면 남성의 교육 수준도 높지 않던 때이므로 농촌 지역에서 배우자로 교육받은 여성을 원하였을까 싶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교육령 등으로 사회가 점차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보통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 등에서는 노영택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 17) 이에 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 당시 효성여학교는 4년제로 승인받았는데, 이후 발생한 분규 때 5~6학년생들을 퇴학시켰다.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에 따라 4~5년으로 단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신 이러한 학교들은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2년의 보습과를 둘 수 있었는데, 4년제의 효성여학교가 5~6학년이 있었던 것은 이런 경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1922년에는 4년제 보통학교가 전체 보통학교의 60.5%, 1926년에도 4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30년 대에도 40~50%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 4년제 보통학교가 매우 예외적인 형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강명숙,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계화 -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한국교육사학회, 2010, 15~16쪽).
- 1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862~9863쪽,

인수하였을 때도 김찬수는 학교 운영권을 전적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위임하였다.¹⁹⁾ 그러므로 효성여학교를 개교할 때는 대구대목구의 총책임자로서 교구장이던 드망즈(F. Demange 安世華) 주교가 교장을 맡았으며, 1912년부터 성립학교 여자부의 교육을 담당하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그대로 효성여학교에 수녀를 파견하여 학교 운영에 간여하였다.

효성여학교의 변화 과정은 20세기 초 조선의 여성 교육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처음 효성여학교는 남자 학교의 부설로 설립되었다가 점차 남자 학교와 동등한 위치를 획득하며 분리되었다. 이후 야간제에서 주간제 학교로 전환하며, 1925년에는 공식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마침내 6년제 효성여자보통학교로 승격하였다. 이 과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의 여학교 설립 증가와 거의 일치하며, 이는 한국 천주교회가 여성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쏟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딸들을 야학 등의 임시 교육 기관이 아닌 총독부에서 인정한 제도권 교육을 받게 하려는 부모도 점차 증가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1924년 11월 효성여학교에서는 학내 분류로 인하여 6학년 전체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학생을 퇴학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구교구 내에서 가장 잘 되어 가는 것은 확실히 여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한국인 수녀 4명은 놀라우리만큼 그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학생들을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며, 학생들은 선생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의 학교가 이처럼 성공한 원인은 한국인들의 가정으로부터 수녀들만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데에 있음이 분명합니다.²⁰⁾

이 자료는 1921년 대구대목구가 제출한 연말보고서 가운데 해성학교 여자부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비록 한국 천주교회 측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학교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19) 1949년에 김찬수가 학교의 운영권 및 재산을 공식적으로 교회에 양도하였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 9862쪽).

20) 명동본당 편, 『명동 천주교회 교세 통계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연말보고서라는 성격상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교였다면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건조하게 학교의 운영 일정 등을 서술하거나 문제점들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19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학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이후 운영진의 교체가 없었는데도 불과 3년 후 효성여학교에서는 학내 분규가 발생했으며, 이를 주도한 고학년은 대규모 퇴학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을 기록하였던 『드망즈 주교 일기』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효성여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이전부터 姜 수녀가²¹⁾ 담임인 赤司 선생의 수업을 감시하다가 사사건건 끼어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24년 11월 11일 학생들은 강 수녀를 지칭하며 “재수 없는 년”이라 하였고, 이것이 강 수녀의 귀에 들리면서 문제가 되었다. 당시 효성여학교의 교장이던 드망즈 주교는 바로 학교 문을 닫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후인 11월 13일 여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한 후에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 주동자 제명을 결정하였고, 학교 측은 몇몇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다시 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시 학교가 문을 연 11월 14일 학생들은 학교의 퇴학 처분에 항의하였고, 결국 6학년 28명과 5학년 5명, 총 33명의²²⁾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퇴학당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퇴학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서 불복하며, 대구 시내의 각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학교의 강경 대응을 문제 삼으며 학교 측을 비판하였고, 대구 여성 청년협의회는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학교 측과 교

21) 『동아일보』는 ‘姜 000(修女)’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康 테클라 수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康 테클라 수녀는 1912년부터 효성여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여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1924년 무렵 康 테클라 수녀가 다른 곳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효성여학교의 수녀 이임 관계를 확인해보아도 또 다른 강씨 성을 가진 수녀는 등장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측에서 테클라 수녀의 성씨인 ‘강’의 한자를 오기한 듯하다.

22) 『동아일보』에서는 31명의 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섭을 시도하였으나 학교 측은 불응하였다. 이후 어떠한 기록에서도 더 이상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된 듯하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조선인 수녀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학내 분규로까지 발전하였으며, 언론 및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나 상당수의 학생이 퇴학당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1920년대는 전국적으로 학내 분규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동맹휴학(맹휴)도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였다. 당시 일제 측은 맹휴의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① 학교 설비, 교규, 교직, 학과 기타에 기인 ② 교원 배척 ③ 학교 내부 사안 ④ 학생 간의 사안 ⑤ 지방 문제 ⑥ 민족 의식 및 좌경 사상 등이었다.²³⁾ 이 가운데 효성여학교 분규는 ①의 교규와 ②의 교원 배척에 해당하였다. 그렇지만 ‘서양 종교 기관의 학교’라는 점은 서양인 학교 운영진, 조선인 학생·학부모로 대립 관계를 설정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효성여학교 분규는 ⑥의 민족 의식 관련 사건으로 비화하였다.

Ⅲ. 효성여학교와 천주교회의 권위주의적 대응

사건의 개요만 보았을 때 1924년 11월 曉星女學校에서 발발한 분규는 학생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수녀 간의 싸움이 빌미가 되었다. 당시 효성여학교의 교장이던 드망즈 주교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녁때 나는 전혀 예상외에의, 그리고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여학생들이 반항을 하며 수녀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 문을 닫게 하고 수녀들을 수녀원으로 돌려보냈다.²⁴⁾

23) 강혜정,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278쪽.

2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 신문사, 1987, 511쪽.

사건이 발생한 11월 11일 당일 드망즈 주교는 여학생들이 반항을 하며 수녀들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 문을 닫고 수녀들을 수녀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일기를 작성하였다. 이날 드망즈 주교는 여학생들의 반항 원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술 없이 학교 내 상황만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드망즈 주교가 생각한 이 사건의 원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여학생들의 행위를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였다.

...(상략)...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언어도단적 행동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의 이면인 신자 집단의 암적인 나쁜 정신이다. 내 눈에는 첫 번째 이유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번째 이유와는 비교가 안 된다. 만일 첫 번째 사실이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추후 어떤 제재가 불가피할지라도 수녀들에게 학교를 다시 열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다른 본당들이나 공소에, 대구 본당에 대해서도, 따라서 일체의 본당 성무를 중단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²⁵⁾

드망즈 주교는 이 사건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로 학생들이 수녀에게 욕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내면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나쁜 정신이었다. 특히 후자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할 지역, 즉 대구대목구 내에서 일체의 성무²⁶⁾를 금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망즈 주교는 이 사건을 학교 내 분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신자의 반발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도 학생과 교사가 아닌 신자와 성직자로 인식하였다. 수녀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교수법에 대한 반발이 아닌 수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였다. 이렇듯 드망즈 주교는 이 사건을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행위를 학내 규범이 아닌 교회 규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상이 아닌 교회 내 암적인 세력으로 간주한 드망즈 주교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25)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글, 511쪽.

26) 교회의 활동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예로 미사를 꼽을 수 있다.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퇴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드망즈 주교는 성사 중지라는 무기를 동원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압박하였다.

대구효성여학교 분규 문제에 대하여는 누차 보도한 바이며 천주교 주교를 비롯한 학교 당국자들은 끝끝내 태도를 강경히 하여 퇴학당한 학생들과 그의 학자모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답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답이 없다 하며 더욱이 일이 일어난 뒤로부터 분규의 불길을 학부형에게까지 미쳐 매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벌을 신부로부터 내리었다하며 …(하략)…²⁷⁾

이 기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 동안 학교 측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대구 내 여러 사회 단체 앞으로 하소장을 보냈다는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효성여학교의 교장이던 드망즈 주교는 학내 분규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 이 결정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학교 측에 항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였고, 대구여자청년회는 교섭을 위하여 효성여학교의 방문을 시도하였다.²⁸⁾ 학생들의 퇴학 이후에도 효성여학교를 둘러싼 소란은 계속 이어진 것인데, 이에 드망즈 주교는 대구대목구장의 자격으로서 학부모를 성찬에서 제외하였다. 학부모들은 퇴학당한 자식들의 문제를 수습하려는 학부모로서 대응하였지만, 학교와 천주교회 측은 불복한 신자들을 제재하는 천주교회의 입장에서 대응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학교와 교회는 종교의 권위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채 학내 분규에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성여학교 측의 강압적인 대처는 그 분규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

27) 「출교생, 사회에 애소」, 『동아일보』 1924년 11월 25일자.

28) 「효성교 문제로 대구여청협의」, 『동아일보』 1924년 11월 29일자 ; 「냉담한 효성여교」, 『동아일보』 1924년 12월 15일자.

...(상략)... 대구 명치정에 있는 사립 효성여학교는 대구 천주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인데 그 전신은 대구 사립 해성학교 여자부로 작년에 분립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생도가 조금만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곧 석탄고나 또는 뒷간 같은 데에다 삼사 시간씩이나 가두어 두는 일이 종종 있다는데 수일 전 모모 여생도 십여 명이 그 전신 되는 효성학교의 운동회 구경을 갔다는 이유로 또 수 시간의 구류를 당하였으므로 그 학생의 부친 되는 모씨가 그것을 알고 동교의 주무자인 불란서 사람 모씨에게 질문하러 갔었으나 그 주무자는 잘 응대하여 주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딸의 편을 들리었다는 구실로써 그 두 생도까지 출학을 시키고 말았다 한다. 이에 대하여 일반 인사는 물론이요, 동 교회인들도 그 부당한 처치를 비난한다.²⁹⁾

이 기사는 효성여학교의 분규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의 기사로, 효성학교의 운동회를 구경하는 바람에 수 시간 구류를 당한 학생의 아버지가 이를 항의하자, 학교 측에서는 당사자인 학생과 그 학생을 옹호한 다른 학생까지 퇴학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은 효성여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기사화가 될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효성여학교의 제재는 상당히 가혹했다. 아울러 가혹한 처벌에 대한 부모의 항의에도 학교는 제대로 된 응대는커녕, 항의한 부모의 자식과 그를 옹호하는 다른 학생들까지 퇴학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당시 주무자가 학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가운데 어떤 것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학생과 학부모를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학생들 사이에서의 불만은 이미 상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학내 분규 후 학생을 내쫓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략)... 삼십여 명의 생도는 전부 행동을 같이할 작정으로 일제히 손을 들고 강경하게 대항하였는 바, 이때 학교 당국자는 다시 퇴학 명령을 내려 학생을 밖으로 쫓아내며 학생들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일장의 소동이 일어났는

29) 「여생도를 학교에서 구금」, 『시대일보』 1924년 5월 19일자.

데, 더욱이 불란서 사람의 신부들은 수도복을 입은 대로 생도에게 덤벼 馬命順, 金玉壽, 梁長景 등 학생 십여 명에게 여러 가지 폭행을 더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또 한 발로 차고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의 일대 할극을 연출하였으며 …(하략)…³⁰⁾

이 기사는 효성여학교 사건의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선일보』 기사로, 프랑스 신부들이 수도복을 입은 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며 학교 측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프랑스 신부들의 인터뷰를 함께 기재하였는데, 프랑스 신부는 “그런 나쁜 생도들을 두면 다른 생도들이 공부를 못 하겠기에 그와 같이 못 오게 하였소이다. 나가지 않겠다고 하기에 어서 나가라 하고 좀 밀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얻어져서 상한 일까지 있다고 야단들이요.”라며 학교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³¹⁾ 프랑스 신부의 인터뷰처럼 학교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폭력 행사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전부터 효성여학교의 처벌이 가혹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랑스 신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학교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응을 당연하게 여겼던 프랑스 신부는 학생들의 반발을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정당화할 수 있던 것이다.

이러한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앞서 살펴본 대로 드망즈 주교는 학생들이 수녀에게 한 나쁜 말이 사건의 원인임을 알았지만, 왜 나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교의 입장은 효성여학교 분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다.

…(상략)… 백발을 휘날리는 장 신부(프랑스인)는 말하되 한 달인가 두어 달 전부터 아이들이 선생을 욕하며 심하게는 칠판에다 무엇을 그려놓고는 이것이 선생

30) 「대구효성여학교의 퇴학 소동」, 『조선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31) 「삼십 명에 출교 처분 대구효성교의 불상사」,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아무 년이라는 것까지 있었기에 그에게 교문을 닫고 어저께 주교에게 생도와 학부 형이 사과하였지요...(하략)...³²⁾

이 내용에 따르면 학내 분규가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학생들과 선생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학생들과 선생 사이에서는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선생에게 가진 불만의 이유를 대지 않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발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대신 분규가 발생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학교 측은 학생들의 퇴학을 결정하였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이미 불거진 사건의 수습에만 집중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 탓으로 돌린 결과였다.

효성여학교 분규에서 드러난 종교 기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1922년 서울의 정신여학교 학생들은 가혹한 기숙사 규칙과 이를 강제하는 학교 당국에 반발하여 동맹 휴학을 하였다. 이에 정신여학교의 교장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30명을 퇴학시켰다.³³⁾ 정신여학교의 사례 외에도 개신교 측에서 설립한 여러 여학교에서도 학교에 대한 여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신체적 감금 형태의 가혹한 처벌, 민족·인종 차별 및 우월의식, 종교적 강요 등이었다.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반발을 믿음의 부족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³⁴⁾ 즉 조선인 여학생들은 학교와 종교 기관을 분리하여 파악하였지만, 당시 개신교 학교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와 종교 기관을 동일시하며 학생들에게 종교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이다.

효성여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은 학내 분규를 그동안 쌓인 자신들의 불

32) 「삼십 명에 출교 처분 대구효성교의 불상사」, 『동아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33) 김정인, 「일제강점기 경성의 여학생 운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20, 36~37쪽.

34) 김성은, 「1920년대 동맹휴학의 실태와 성격 - 선교회 여학교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92~95쪽.

만이 터진 학교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였지만, 학교를 운영하던 주교 및 수녀들은 천주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이던 드망즈 주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내 구성원이 아닌 천주교회 구성원인 신자로 간주하였고, 교장이 아닌 대구대목구장으로서 성무 금지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는 모든 생활이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프랑스 사람들과 교회와 학교를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던 조선 사람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조선인 수녀와의 사이를 학교 공동체의 선생-학생 관계로 파악한 반면, 드망즈 주교는 천주교 공동체의 신자-수녀 관계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쪽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고 학년 전원을 일방적으로 퇴학시키며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 측은 효성여학교의 사건을 학내 분규가 아닌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면서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에 가진 불만을 퇴학과 성무 금지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여 무마하였다.

IV. 언론의 개입과 효성여학교 측의 폐쇄적 태도

효성여학교의 분규는 외국인 운영진과 조선인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생-선생 사이의 대립과 문화적 차이가 주요 갈등 원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드망즈 주교 일기』는 학교와 천주교회 측 입장에서 학생들의 잘못과 그 처분만을 언급하였으나, 당시 언론은 보다 자세히 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우선 효성여학교 분규에 관한 『동아일보』의 첫 번째 기사인 「삼십 명에 출교 처분」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략)...왜 우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 가운데 한 학생이 눈물을 찢으며 “우

리는 육학년인데, 담임 선생은 赤司란 일녀 선생이외다. 姜 000(수녀)라는 학교 감독 선생이 있는데 담임 선생이 교수할 때에 밖으로 가만히 엿보고 생도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자세히 하면 설명이 지루하다느니 쓸데없는 설명은 하지 말라느니 하며 교수하는 선생을 함부로 주의를 시키고하여 우리 생도들은 그것이 보기에 거슬려 어떻게 않게 ‘재수 없는 년’이란 말을 가끔 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을 그 감독 선생이 듣고 노여워하시기에 우리들은 잘못된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도무지 받지 아니하더니 그제로부터 학교 문을 닫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전 반 생도와 학부형과 주교(安世華)에게 가서 잘못된 사과를 하여 오늘부터 공부를 시킨다하여 여전히 책보를 싸가지고 온 張(프랑스 신부) 신부와 선생들이 육학년 전부와 오학년 중 다섯 명 서른 한 명을 퇴학시키니 다시 오지 마시오하고 … (중략)…참 오학년은 들으니 담임 일녀 선생이 생도보다도 못한 자격으로 가르쳐서 그 선생을 배척하는 생도가 몇이 있었답니다” 하며 나오는 눈물을 멈추노라고 눈을 껌뻍거린다.

이 설명 역시 전체적인 줄기는 앞에서 살펴본 줄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드망즈 주교의 서술보다 자세하다. 이 과정에서 드망즈 주교의 일기에는 등장하지 않던 두 명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赤司라는 일본인 여교사와 5학년을 담당하던 일본인 여교사이다. 이 둘은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학년 학생들은 赤司 선생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이지만, 5학년 학생들은 일본인 여선생에 대하여 학생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선생에 대한 이러한 극명한 평가 차이를 볼 때,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일본인 여선생은 두 명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赤司 선생은 효성여학교 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드망즈 주교는 학생들이 수녀 욕을 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해 강 수녀가 赤司 선생의 교수 방법에 불만을 갖고 시시때때로 참견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고 진술하였다.³⁵⁾ 이렇듯 赤司 선생은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지만, 교회 측 자료에서는 赤司 선생에 대해 전혀 확인할 수 없다.

35)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시대일보』도 비슷한 어조의 기사를 실었다(「교문을 위요 통곡 - 효성여학교의 분규」, 『시대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대신 드망즈 주교의 일기 및 언론 등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여교사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우선 드망즈 주교의 일기부터 살펴보자.

오늘 아침에 무세 신부가 6학년에서 28명, 5학년에서 5명, 도합 33명을 여학교에서 퇴학시키려고 갔다. 조금 저항은 있었지만 퇴학은 이루어졌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무세 신부에게, 그 주동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학교로 갔고 일본인 여교사에게 해를 입히고 나오는 주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 여교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쫓아내기 위해서였다. 일본인 여교사는 저항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수녀들이 그녀를 간호했고, 그녀는 1시간 만에야 의식을 되찾았다.³⁶⁾

드망즈 주교가 11월 13일에 수녀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서³⁷⁾ 13일 오후에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³⁸⁾ 이어 14일에는 학내 분규의 주동자에 대한 대규모 퇴학 처분이 있었다.³⁹⁾ 그런데 이렇게 퇴학당한 여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였던 강 000 수녀가 아닌, 일본인 여교사를 쫓아내기 위하여 일종의 소란을 피웠다. 이는 앞서 5학년 학생들이 담임인 일본인 여교사를 무시하였다는 발언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두 달 전부터 선생을 욕하며 칠판에 낙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인터뷰도 떠올려 볼 때 효성여학교에서는 일본인 여선생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赤司 선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수녀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선생과 학생들의 관계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赤司 선생의 수업에 간섭을 시도한 수녀의 상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인 여선생과 수녀 사이의 관계도 좋다고 하기 어려웠다. 즉 효성여학교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녀, 일본인 여교사, 조선인 여학생들 간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일어난 충돌이었다.

3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글, 513쪽.

3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글, 512쪽.

38) 「사제 간 충돌로 효성교 일시 분규」, 『매일신보』 1924년 11월 16일자.

39) 「사제 간 충돌로 효성교 일시 분규」, 『매일신보』 1924년 11월 16일자.

그렇지만 학내 분규 발발 후 이러한 구도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당시 효성여학교 분규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이 기사화하였는데,⁴⁰⁾ 이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6편과 5편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들 언론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인 수녀와 일본인 여교사를 옹호하면서 조선인·일본인·서양인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진과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학생 측의 대립 구도로 효성여학교 분규를 파악하였다. ‘가없는 조선인 여학생들에 대한 프랑스 신부가 설립한 학교의 외면’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냉정한 외국인 학교 운영진과 미숙하고 순수한 여학생을 등장시켰다. 우선 전자를 위하여 당시 언론은 ‘佛人 신부’, ‘불란서 사람’이라는 단어 및 외국에서부터 왔다는 서술을 통하여,⁴¹⁾ 학교 운영진이 조선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후자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눈물 및 방황, 哀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여학생들의 수모를 부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도 11월 13일에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주동자 제명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이 주동자 제명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주동자를 제명하고 학교 문을 연다’와 ‘학교 문을 닫는다’ 두 가지 항목밖에 없다면 결과는 뻔했을 것이고, 이렇게 불합리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투표라면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룬 언론에서 오히려 더 강도 높게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타의 언론들은 이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동정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언론들은 교회 측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사를 실었으며, 『시대일보』의 경우 주동자 제명을 투표로 결정한 13일 당일에 학생들의 퇴학을 기사화하였다는 점에서⁴²⁾ 주동자 제명 투표를 아예 몰랐다

40)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에서 ‘효성여학교’, ‘효성학교’ 등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이다.

41) 「종교와 교육」, 『동아일보』 1924년 11월 17일자.

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신 학생들이 단체로 퇴학을 당했다는 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단체로서 교섭을 위하여 효성여학교를 공식 방문한 대구 여자 청년회는 프랑스 신부로부터 간섭하지 말라는 요지의 애기와 함께 냉담하게 무시당하였다.⁴³⁾ 이때 학교 관계자인 김모씨로부터 “계집들이 살림이나 살지 않고 건방지게 남의 학교 일에는 무슨 간섭이야”라는 모욕까지 들었다.⁴⁴⁾ 대구 여자 청년회가 프랑스 신부와 관계자 김모씨 등 학교 운영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 학교 측은 학생·학부모 외에 지역 단체와도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었다. 결국 외국인 운영진 위주의 학교 측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학생·학부모·언론·지역 단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강경한 입장에 따른 폐쇄적 태도를 고수하며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은 채 내부 해결만을 도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수녀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내 분규의 원인인 조선인 강 수녀를 살펴보자. 그는 프랑스인이 세운 학교에서 근무하는 수녀로만 등장할 뿐, 강 수녀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욕설 행위를 변명하며 사건의 진상을 진술할 때조차, 강 수녀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사건 발발 후 강 수녀와 학교 측 간에는 분명히 대화가 이루어졌겠지만, 강 수녀의 진술 대신 드망즈 주교의 판단만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시 언론은 강 수녀를 세상 존귀와 세상 안녕만을 중요하게 여겨 어린 학생들에게 일종의 사형선고를 내린 옹졸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책임과 지위를 다하지 못한 프랑스 신부와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⁴⁵⁾ 효성여학교의 외국인 신부가 언론 및 학부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강 수녀는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발표하지도 못한 채 언론의 집중포화 대상이 된 것이다.

42) 「교문을 위요 통곡 - 효성여학교의 분규」, 『시대일보』 1924년 11월 16일자.

43) 「냉담한 효성여교」, 『동아일보』 1924년 12월 15일자.

44) 앞의 글.

45) 「강수녀와 장신부에게」, 『조선일보』 1924년 11월 20일자.

물론 이 과정을 학교 측의 적극적인 수녀 보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우호적인 해석은 석연치 않다.

오전 중에 여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동굴의 광장으로 왔다. 베르모렐과 무세 신부, 서병조와 학교 수녀들도 와 있었다. 여학생들은 사과를 했고, 그녀들 자신들이 주동자들의 제명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어 수녀들이 주교댁으로 인도되었고, 수녀들은 싫어했을지라도 수녀들에게 학생들을 따라 학교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요구대로 되었다.⁴⁶⁾

효성여학교 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 수녀였지만, 여러 기록을 볼 때 이전부터 학생들은 수녀들의 교수 방법에 불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학생들 측에서는 수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었고, 수녀들 측에서는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드망즈 주교는 이러한 조율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수녀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사건이 발발한 11월 11일 학교 문들 닫고 수녀원들을 수녀원으로 돌려보낸 사람도 드망즈 주교였고,⁴⁷⁾ “수녀들이 싫어했을지라도 수녀들에게 학생들을 따라 학교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사람도 드망즈 주교였다. 이것은 이미 수녀들이 종교라는 폐쇄적 구조에 갇혀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가부장적인 천주교 질서에 순응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요구와 입장을 드러내지 못한 채 학교와 천주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종교 내부의 위계 질서를 당시 조선인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언론은 수녀들의 행동이 교회의 공식 입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수녀들을 조선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타자화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赤司 선생과 다른 일본인 여선생들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타자

4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글, 512쪽.

4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글, 511쪽.

화가 이루어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 선교사, 선교사와 뜻이 같은 조선인 수녀들, 赤司 선생 모두 조선인과는 다른 타자였다. 언론 등이 조선인 여학생과 외국인 학교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드망즈 주교 및 학교 측은 조선인의 범주에서 제외되며 타자화되었다. 드망즈 주교 등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조선인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그들 또한 일종의 식민지배 계급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조선 내의 주류 식민지배 계급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기존의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사이 속 계급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⁸⁾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등의 언론과 대구 여자 청년회 등의 지역 사회는 효성여학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류 관계자들 간에 조선인과 외국인의 구도가 명확해졌고, 학교 측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외부의 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효성여학교가 천주교 학교라는 사실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다른 제국들처럼 기독교 등의 종교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 침략 이후 神道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에 천황제라는 정치 질서를 정착하려는 목적이 보다 강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시기 초기에 기존 종교들은 제한적이더라도 선교 활동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조선의 종교라 할 수 있는 유교의 자리를 기독교 등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선교 활동을 담당하는 세력은 서양인들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 출신이었다. 일제는 이들을 무조건 탄압하기보다는 상당한 편의를 봐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서양인들에 대한 반발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제에 협조하던 천주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천주

48) 이는 호미 바바가 말하고자 하는 in-between 즉 ‘제3의 공간’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호미바바 저,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교 또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으며, 이것은 여러 형태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효성여학교의 사례도 이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아일보』 등의 언론은 천주교가 외국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효성여학교의 불쌍한 어린 여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며 내부 해결을 도모하였고, 학교 밖 외부 세력은 조선인 여학생과 대립하는 세력들을 타자화하며 압력을 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타자화 되는 이들 가운데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조선인 수녀들이 이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조선인 학생들로부터는 선생이라며 타자화되었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학생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취급받으며 또다시 타자화되었다. 동시에 학교 내에서는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로서 자기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일찍부터 천주교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은 포교적인 목적에서 발현된 것이었으나, 기초 교육을 통하여 공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여성 교육은 급성장하였다. 이렇듯 여성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기초 교육에만 머문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고, 대구의 효성여학교도 이러한 경우이다. 효성여학교는 처음 남자 학교의 부설로 세워졌으나, 발전을 거듭하여 1924년에는 효성여학교로 독립하였고, 이듬해인 1925년에는 효성여자보통학교로 공식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1924년 효성여학교에서는 학내 분규가 발생하였다. 최고 학년인 6학년생들과 강 000 수녀와의 마찰로 시작된 이 사건은 6학년생 전

원과 5학년생 일부, 총 3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번에 퇴학당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때까지 이 사건은 교회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교장이던 드망즈 주교는 이 사건을 학생과 선생의 마찰로 보지 않고, 교회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반항으로 간주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성사 금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이는 효성여학교를 교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한 학생·학부모의 입장과 효성여학교를 교회의 일부로 파악한 운영진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이 효성여학교 분규를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은 보다 복잡해졌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진과 학생 사이의 교수법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대립뿐만 아니라 조선인 학생과 비조선인 선생의 관계라는 점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특히 조선인 여학생들이 학교 측에 눈물 어린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회 학교와 비조선인 선생들이 강경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이를 외면한다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인 독자들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갖고, 외국인 선생들을 타자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효성여학교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수녀들도 타자화된 비조선인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라는 외국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조선인 수녀들은 천주교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원인이면서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결과에 따라야만 하였다. 즉 조선인으로서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도 확실한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한 것이다.

이상으로 효성여학교의 분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대구 지역에서 잠깐 발생하였던 학내 분규에 불과하지만, 일제시기 외국 종교와 한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일제시기 한국천주교회는 여성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학교와 교회를 동일시하며 학생들을 천주교 신자로 파악하였다. 이는 서양과 다른 조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 및 학부모를 강압적으로 대하기도 하였다. 둘째 효성여학교의 분류는 학생의 욕설과 이에 대한 강압적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었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은 사건 관련자를 조선인과 비조선인으로 이분화하였다. 즉 민족주의적 원인으로 발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때로 외부에서는 민족의 구분을 통하여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인과 비조선인으로 이분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동조하는 혹은 한다고 여겨지는 조선인도 외국인으로 타자화되었다는 점이다. 효성여학교의 분류 당시 조선인 수녀들은 천주교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언론으로부터 배척당하였고, 천주교의 가부장적 질서로 인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주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기 조선인이므로 받는 차별 외에도 종교의 폐쇄적 구조 및 외국 세력의 동조자라는 이중, 삼중의 억압에 놓이게 된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가톨릭회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명동본당 편, 『명동 천주교회 교세 통계표』,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 신문사, 1987.

강명숙, 「일제시대 학교제도의 체계화 -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1, 한국교육사학회, 2010.

강혜정, 「숙명여고보 맹휴사건으로 본 식민지 여성교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김성은, 「1920년대 동맹휴학의 실태와 성격 - 선교회 여학교를 중심으로」, 『여성 과 역사』 14, 한국여성사학회, 2011.

김정인, 「일제강점기 경성의 여학생 운동」, 『일제강점기 경성지역 여학생의 운동 과 생활』, 서울역사편찬원, 2020.

김영순, 「한국 천주교에 있어서의 여성 교육 - 1795~1910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류성민, 「일제 강점기의 한국 종교와 민족주의-일제의 식민지 종교 정책에 대한 한국 종교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한국종 교』 24, 1999.

박상혁, 「일제의 종교정책과 대구대목구의 대응에 대한 고찰 - 드망즈 주교를 중 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신영숙, 「일제 시기 천주교회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 『교회사연구』 19, 한국교 회사연구소, 2002.

윤선자, 「일제 말기 가톨릭 여성교육과 계성여고」, 『한국 기독교와 역사』 24,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채티지, 「누구의 상상된 공동체인가?」, 『Transtoria』, 박종철출판사, 2003. 3.

허 중, 「일제강점기 후반 대구사범학교의 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김호일, 『한국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바트 무어 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출판사, 2006.

송규진,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위르겐 오스터함멜 지음, 박은영 · 이유재 역,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6.

윤정란, 『한국 기독교 여성 운동의 역사』, 국학자료원, 2003.

장규식,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39 - 1920년대 학생 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Abstract

Intramural disputes at Catholic girls'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disputes at Hyosung Girls' School in Daegu -

Kim, Ka-ram

In 1924, the Korean Catholic Church founded the Hyosung Girls' School in Daegu, which expelled more than 30 students for swearing at the school's administrators. While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recognized the school as a separate institution from the church, the school administration considered the school part of the church and saw it as a threat to its authority.

The media that covered the case at the time pointed to the authoritarian response of the school and the Catholic Church during the dispute, reporting that foreign school officials turned a blind eye to the Korean girls' tearful appeals to the school. In this process, a Korean nun, a key player in the case, was excluded from the Korean community, but as a member of the Catholic Church, she had no voice and was forced to abide by the church's decisions.

In conclusion, the Hyosung Girls' School dispute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foreign religio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ree ways. First, the Korean Catholic Church, which equated school and church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dentified students as Catholics and sought to control them through the authority of the church. Second, although the Hyosung Girls' School disturbance was caused by complaints about students' profanity and

the coercive treatment of students, the media at the time sought to understand the incident by dichotomizing those involved into Koreans and non-Koreans. Finally, Koreans who were or were thought to be sympathetic to foreigners were also othered as foreigners, and in this process, the Korean nuns were subjected to double and triple oppression: discrimination for being Kore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losed structure of their religion, and being sympathetic to foreign powers.

keywords :

Hyosung Girl's School, Korea Catholic, Foreign religions, Daegu Archdiocese, women's education, campus disputes, female students, medi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nuns